

수신: 교토 교구 협력 선교 사목 블록의 사제 및 신자 여러분

+ 교토 교구장 바오로 오쓰카 요시나오 주교

2026년 신년 사목서한 - 취지문**교황 레오 14세: 희망과 일치의 다리를 놓는 목자****— 교토 교구의 선교 사목 여정에 울려 퍼지는 교황의 비전 —**

교황 레오 14세의 영적인 시선에 이끌려, 교토 교구는 2026년을 희망 속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해로 삼고자 하며, 지금까지의 선교와 사목의 여정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 희년의 은총에 대한 감사: “희망의 순례자들”

먼저, 2025년 희년 동안 받은 수많은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시다. 기도와 화해, 연대와 봉사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이와 함께 희망의 순례자가 되자”는 마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누구와 희망을 나눌 수 있었습니까?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동반하며,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었습니까? 돌이켜보면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지금 여기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시선을 나누며, 함께 희망의 길을 걸어갑시다.

■ 교황 레오 14세의 시선

2025년은 교회에 있어 중요한 전환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로부터 교황 레오 14세에게 교황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아가는 교회”,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라는 복음적 자세를 보여주신 교황 프란치스코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선은 교황 레오 14세에게 온전히 계승되어, 지금도 우리의 여정을 부드럽고 힘 있게 비추고 있습니다. 새 교황은 “희망”, “일치”, “다리를 놓는 교회”라는 비전을 힘 있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폐루에서의 선교 경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복음을 통해 하나 되는 모습을 지켜보신 교황께서는, 교회가 모든 이를 환대하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 교토 교구의 여정

교토 교구는 2027년에 교구 설립 90주년을 맞이하며, 그 준비는 2026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이정표를 향해, 교구는 교황들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함께 걷는 교회”的 모습을 조금씩 구체화해 왔습니다. 이제 다문화 공존과 “영적 대화”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각자가 “희망을 지닌 순례자”로서 기도와 봉사, 나눔과 경청을 통해 복음의 빛을 지역 사회에 널리 퍼뜨립시다.

2026년의 본당 사목 방문, 각 지구/블록 공동 견진 미사 및 행사 일정은 교토 교구 홈페이지의 “교구장 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